

[종합·해설]

# 전남도 인사 후유증 예고

### F1 지원과장 등 일부 직책 '업무 생소' 기피 인사 주무 국장마저 보직이동 이유 인선 손때

조직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의회와의 충돌때문에 한 달이나 늦어진 전남도의 민선 4기 첫 대규모 인사가 준비단계부터 파행이다. 또 일부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국장급(부이사관) 2명과 과장급(서기관) 8명의 승진을 포함한 간부와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과장급,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하위직 후속 인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와의 힘겨루기 끝에 겨우 조직개편을 마치고 실시하는 이번 인사는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다. 인사 주무 국장인 김양수 행정혁신국장이 지난 21일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김영록 행정부처장사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

김양수 국장은 지난 7월 도의회가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자 실무자로서 박준영 지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보직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본인이 인사대상으로 거론됨에 따라 인선작업에서 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에서는 그가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 두드러진 문제는 일부의 직책기피 현상.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기업도시기획단의 'F1(포플러 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과장'이 대표적 사례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업무에다 국제행사 개최라는 중압감때문에 거론되는 인사들은 회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여기에는 1947년생 고참 서기관인 부단체장 발탁도 논란거리. 당초 올해 말 공모연수 대상이던 김선수 총무과장은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돼 담당 부근수 전출이 예정됐지만 짧은 진여 일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젊은 서기관들이 도청에서 기회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남 최초의 기초단체 여성 부단체장 인선도 관심이 쏠린다. 김응자 체육지원과장과 배양자 기업지원과장 중 한 명이 발탁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일선 단체장이 '현실' 문제 때문에 여성 부단체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들려오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살리고 여성공무원 우대라는 상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지만 선뜻 응하는 단체장을 찾기 어려워 실현 여부가 관심사다.

전남도는 23일까지 5·31 지방선거에서 교체된 곳을 중심으로 9곳의 시장·군수와 조율을 거쳐 부단체장을 인선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4일쯤 이번 새로 부임할 부단체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잡다단한 배경 속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의 이번 대규모 인사는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상당기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이해 기자 unipark@kwangju.co.kr



보건복지위 의원들 어디갔나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국회 문광위로 집중된 가운데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식이 텅 비어있다. 현애자 민노당 의원만이 홀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 “노무현 정부와 우리당은 개혁 만능의 독선 버려야”

### 與 초선의원 토론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국민의 길'이 22일 당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당운영과 대(對) 언론관계 등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탈(脫)계파 중도성격의 모임인 국민의 길 소속의원 1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주제로 당 혁신방안을 모색한 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개혁 만능의 독선, 투쟁의 정치를 버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현승 의원은 "무의미한 개혁, 실용 논쟁, 개혁 만능의 편견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묻지마 투표'를 비이성적 행위라고 원망했지만 그토록 비이성적이 되도록 한 원인에 대해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근 의원은 "신과 악, 옳고 그름의 이분법에 따라 투쟁의 정치를 했다. 집권여당 잘못도 있고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평가한 뒤 제정리사 시절 황제 묘비의 글귀에 빗대어 "많은 의도로 많은 것을 하려 했지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여당의원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묘사했다.

또 "언론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대 언론관계에서의 자성론도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당청을 불문하고 여권 내에 공공연하게 언론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관공과 절제에 기반한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금 언론환경에서는 범여권 대선후보가 나서면 아마존에 던진 통닭같이 되거나 망신창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잠복한 것이 역설적으로 다들 슬럽다"며 언론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박기춘 의원은 "특정신문을 독극물에 비유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섬뜩함을 느낄 정도였고 특정신문 불매운동은 어슬픈 정치"라고 평가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문화도시 특별법

### 오늘 법사위 상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은 22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자구심사 등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YTN 국회 돌발영상'

### 임종인 의원 손배소

국회에서 '막말'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YTN과 디지털 YTN,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 '돌발영상' 코너를 통해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與 '노무현 동승론' 술술

### “영남지역 영향력 감안해

### 지도도 낮더라도 같이가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이른바 '동승론'이 우리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연말연초를 전후해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노 대통령과의 결별만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노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민주당과의 통합 등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구상해왔던 당내 통합론자 가운데 상당수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통합론자로 꼽히는 한 중진 의원은 22일 "노 대통령도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계개편으로 충청과 호남을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경상도 표에 뒤진다"며 "노 대통령의 지도도가 낮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영남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DJ 건강 좋아져... 휴가차 제주주



김대중 전 대통령이 22일 휴가차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제주시 해방가의 한 리조트 시설에서 휴식을 취한 뒤 25일 귀경한다.

그의 한 측근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4개월만에 처음 비행기 여행을 했다"면서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로 계획됐던 방북이 북한의 미사일 발

사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이후 김 대통령은 지난 12일 도쿄 피랍 생존 33주년 기념행사와 20일 세계 도서관정보대회 기조연설 외에는 외부 행사를 줄이고 동고동 자택에서 요양해 왔다.

이 측근은 "오는 9월부터는 미뤄졌던 국내외 언론 인터뷰와 대학강연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방북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자증 났습니까?
- 겨울에 춥습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인 사용으로 건물 수명을 늘기 위한 영구적 방수 방열비 50% 절감효과

■ 외장 : 기와지붕, 슬레이트지붕, 암석지붕, 슬라브 옥상, 아파트 옥상, 공장지붕, 농장지붕 등  
■ 내장 : 온실, 주차, 개사, 방충창고, 서온창고, 체육관 건물벽, 차용등 실내 인테리어 가능

※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백개발** TEL: (062) 262-0606 / 262-0450

**웰빙 실내정원**

★ APT 베란다, 사무공간, 정원 설치 ★

**인테리어**

- ◎ APT, 주택 리모델링
- ◎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 ◎ 몰딩, 조각, 인테리어 제품, 실내인공폭포, 분수, 물레방아 도소매

광주시 북구 중흥동 건자재거리 (데이콤사거리 쌍용자동차 건너편)

**몰딩과 조각** TEL: (062) 511-8280

**기탄교육**

▶ 기탄문제은행과 기탄만화교과서는 기탄교육 홈페이지(gitan.co.kr)에서 특별판매합니다.

## 2학기 학교시험을 잡아라!

# 기탄문제은행 문제집

학교시험, 더 이상 빠져 나갈 문제가 없다!  
어머니, 벌써부터 2학기 학교시험 걱정되시죠?  
학교 시험지와 똑같이 만든 기탄문제은행 문제집은 초등문제집 사상 최대 문제를 수록하여 그 어떤 문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탄문제은행으로 학교시험 1등 만드세요!  
이제 기탄홈페이지에서 직접 만나 보세요.

● 대상 : 초등 1 ~ 4학년  
● 구성 : 2학기 학년별 전 6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간·학기말·학업성취도 평가, 풀이·해설 및 정답)  
● 기탄 회원특별가 : 초등 1 ~ 2학년 18,000원 / 초등 3 ~ 4학년 19,000원

기탄수학 | 사교력수학 | 한글 | 새국어 | 영어 | 한자 | 중국어 | 금수한자벨리마기 | 가베

기탄학습지는 전국 유명서점과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과서 선행학습을 잡아라!

# 기탄만화교과서

2학기 교과서, 만화로 재미있게 먼저 보세요!  
새학기에도 수업시간에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기탄만화교과서로 2학기 교과서들 미리 만나 보세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핵심요점을 짚어주고, 서술형, 논술형 심층자료를 충분히 수록해 선행학습으로 그만이지요.  
2학기 수업시간에 자신감 넘치는 우리 아이!  
지금 기탄만화교과서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세트 13,000원

● 대상 : 초등 1 ~ 6학년  
● 구성 : 각 학년별 총 4권 구성 (국어, 수학, 과학, 사회)  
● 기탄 회원특별가 : 학년별 4권 1세트 13,000원

기탄 인터넷회원이 되세요  
기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회원 특별가 혜택과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은 기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gitan.co.kr**

▶ 교재문의 : (02)586-1007